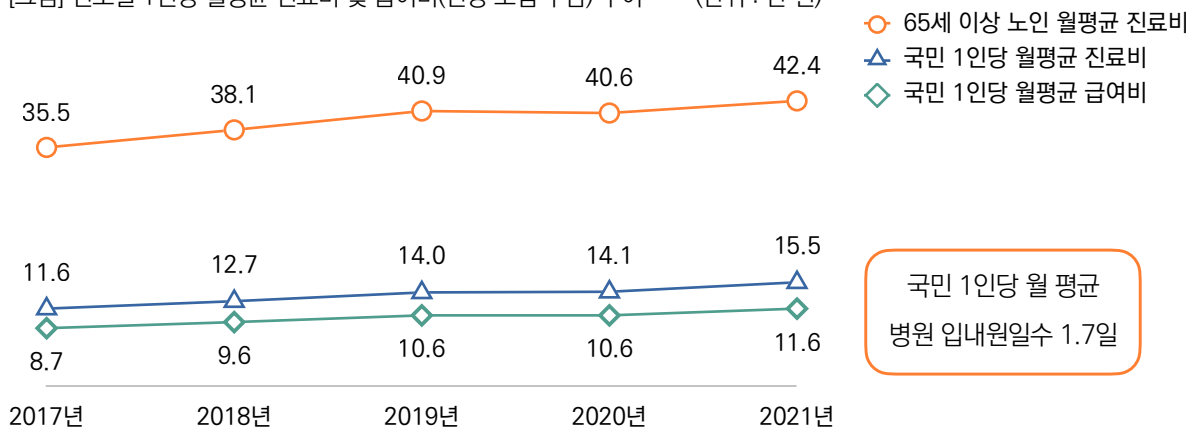




## 지난해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5만 5천 원, 이중 건강보험이 11만 6천 원을 부담!

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'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'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5.5만 원이며,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월평균 지급 금액(급여비)은 11.6만 원으로 나타났다.
- ▶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진료비의 75% 수준이다.
- ▶ 한편,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진료비는 2021년 기준 42.4만원으로 일반 국민 전체의 2.7 배에 달한다.
- ▶ 또한 일반국민의 월 평균 병원 입내원일수는 1.7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연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급여비(건강 보험 부담) 추이 (단위 : 만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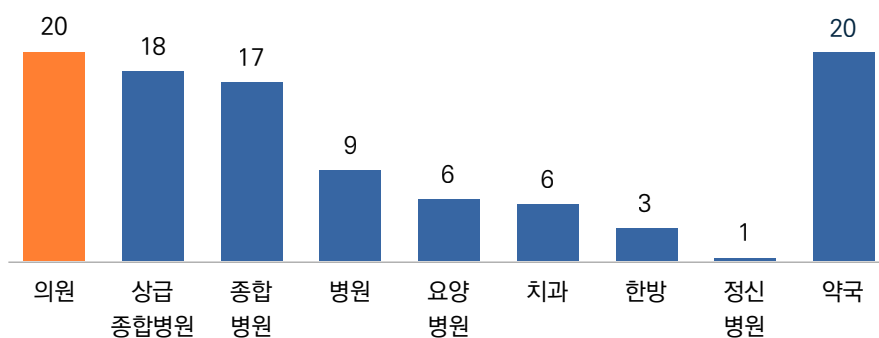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/국민건강보험,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, 2022.11

### ◎ 의료기관 중 '동네 의원'이 가장 큰 점유율 차지!

- ▶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(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)을 살펴보면, 약국을 제외하고 '동네 의원' 차지하는 비율이 20%로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높다. 다음으로 '상급종합병원' 18%, '종합병원' 17% 등의 순이다.

[그림]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(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) 비중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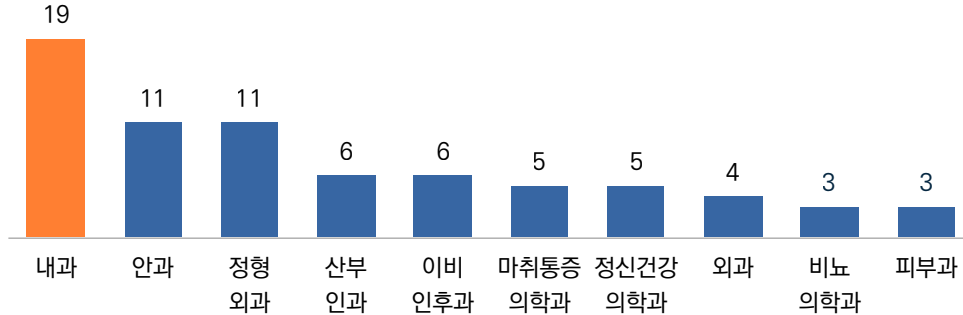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/국민건강보험,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, 2022.11

## ◎ 동네 의원 중에서는 ‘내과’가 단연 1위!

- ▶ 이번에는 진료 과목별 요양급여비용(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)을 살펴보자. 그 결과 ‘내과’가 19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안과 11%, 정형외과 11%, 산부인과 6%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의원급 진료 과목별 요양급여비용(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) 비중 (2021년 기준, 상위 10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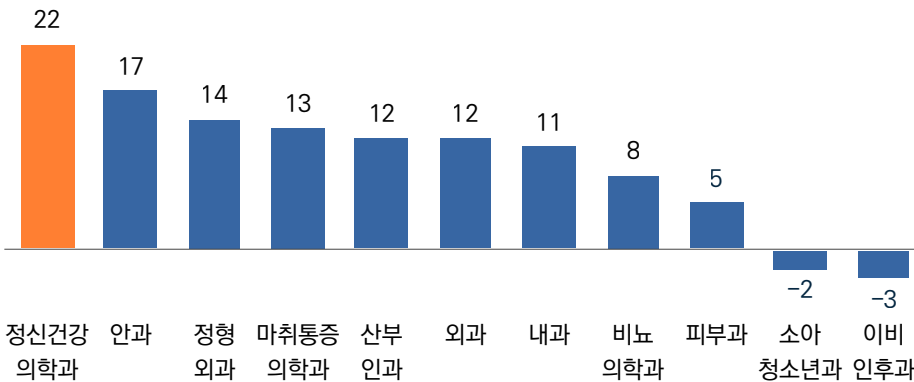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/국민건강보험,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, 2022.11

## ◎ ‘정신건강의학과’, 전년 대비 증가율 22%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높아!

- ▶ 의원급 진료 과목별 요양급여비용(건강보험 부담 금액)을 보면 ‘정신건강의학과’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2%로 가장 높았는데 ‘코로나 팬데믹’으로 인한 ‘코로나 블루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
- ▶ 반면 ‘이비인후과’와 ‘소아청소년과’는 2020년 대비 각각 -3%, -2%로 오히려 감소를 보여, 코로나 기간 동안 이용 환자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의원급 진료 과목별 요양급여비용(건강보험 부담 금액) 증감률 (2020년 vs 2021년, %)



\*자료 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/국민건강보험,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, 2022.11

\*\*참조) 조선일보, ‘정신건강과 진료 작년 22% 늘었다’ 기사 참조, 2022.11.11.

(<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welfare-medical/2022/11/11/ITZD33YKNNDSZKDXVDF3LUDM/>)